

반파시즘은 파시즘이 낳은 최악의 산물이다

TheRedFlag

<https://youtu.be/UiMVz-KtKCw>

아마데오 보르디가가 81세에 한 최초이자 최후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의 리더로서 1921년 당신은 파시즘을 단순히 그 전까지와 같은 부르주아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그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패배시키는 것이 가능할 때부터 파시즘에 반대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파시즘에 맞설 동맹이 될 수 있었을 위에서 논한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최대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에게 반대했습니까?

우리의 분파는 언제나 파시즘에 대해 옛 이탈리아 사회주의당에서 갈라진 세 가지 세력 - 사회주의자, 개혁주의자, 최대주의자 - 로

이뤄진 하나의 블록으로 맞설 수 있다는 테제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이는 당신의 질문이 잘못되게 암시하는 것과 다르게

1921년 리보르노 대회에서 우리가 취한 관점이 아니었으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보르노에서

우리가 작성한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리보르노와 밀란에서 분열의 결과로 태어난 다른 정당들을 우리의 최대 적으로 간주해왔으며, 이는 그들의 남아있는 영향력이 공개적으로 혁명을 준비하는 것과는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제는 1922년 로마와 1926년 리옹에서 열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대회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들에서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볼로냐 사회주의 회의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헝가리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전보를 통해 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독재정부에 초청한 중대한 실수를 비판하는 레닌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이것이 그 혁명의 결과적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모두에게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려 투쟁할 때든 권력을 잡은 이후(그 투쟁이 성공한 경우)든 사회주의자들과 어떤 경우에서도 동맹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야 합니다.

제가 파시즘의 역사적 측면을 평가하자면, 저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1922년, 1924년, 1926년에 한 세 연설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파시즘을, 지배계급의 필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국가가 그 지배권을 확립하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 외의 그 무엇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는 의회주의가 부르주아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더 유용)

부르주아 국가가 그토록 자랑스레 뽐내던 선전과 조직의 자유는 부르주아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마다 철저히 짓밟혔으며

이는 Crispi, Pelloux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무력과 경찰력 사용으로 극적으로 그 모범적 예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수단에 대한 종종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전례는 그 레시파가 파시스트들이나 그들의 리더 무솔리니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제 연설들의 텍스트는 세계대회의 프로시딩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우리 경향에서 확실히 출판할 것입니다.

그람시와 이탈리아당의 중도주의자들이 고안한 이론에서 출발해, 우리는 파시즘이 농업적, 지주적이며 지대추구적인 부르주아와

반대로 더 현대적이고 산업적, 상업적인 부르주아의 대결이라고 논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농업적 부르주아지는 카톨릭과 온건 성직자들처럼 우익 이탈리아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 부르주아지는 'The laity'(평신도라는 뜻/ 세속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을 듯)로 알려진 정치적 좌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 운동은 틀림없이 그 두 축 중 하나를 지향한 것이 아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공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사유경제의 모든 사회적 측면의 보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적이자 가장 큰 위험은 파시즘 자체가 아니며, 무솔리니라는 개인 자체는 더더욱 아닌,

파시즘이 낳은 범죄와 악명 중에서도 바로 반파시즘이라는 자세를 굳게 유지했습니다. 이 반파시즘은 거대한 독성 괴물,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적 착취와 그 모든 수혜자들: 대단한 금권가들과 반-부르주아들의 우스운 대열, 지식인들과 The laity 의 거대한 블록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1919-1919)



Luigi Pelloux(1839-1924)